

# 광주 아파트 경매시장 활기

건당 응찰자수 9.3명 전국 최고… 쌍촌동 호반 31명 몰려

전남은 주춤품… 200억대 목포 석재물류타운 48억 낙찰도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이 불비고 있다.

12일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광주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의 응찰자 수가 9.3명으로 전달(9.4명)에 이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매가 진행된 94건 가운데 43건이 매각돼 45.7%의 매각률을 보였다. 이는 전달보다 각각 36건, 22건이 줄어든 것이다.

경매 물건 수가 많지 않아 응찰자가 몰리면서 매각률은 92.6%를 기

록, 전달(85.1%)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응찰자 수가 10명이 넘은 물건이 43건 중 19건이나 됐고,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호반리첸시빌 84.8㎡의 경우 31명이 몰려 감정가 1억5천만원보다 높은 1억5천189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1억4천만원의 북구 일곡동 쌍용아파트 96.9㎡형은 1억5천613만원에 팔려 매각률을 1위(111.5%)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물건 수가 99건으로 지난달(47건)보다 2

배가량 늘었지만 매각률은 20%대로 떨어져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각률도 낙찰된 29건 가운데 20건이 100% 미만에 낙찰되는 등 큰 폭으로 내렸다.

반면 토지 물건은 쏟아졌다. 토지 물건은 전달보다 17건 늘어난 1천718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매각률(37.5%), 매각율(80.9%), 평균 응찰자 수(2.1명) 등은 모두 지난달보다 하락해 주춤했다.

엑스포 개발 호재를 만난 여수시

후산리 임야에 각각 18명이 응찰해 경쟁률 1위를 차지했고, 매각률은 감정가 357만원의 신안군 안화면 한운리 임야가 1천437만원에 낙찰돼 402%를 기록했다.

특히 감정가 200억원대의 목포신항만 내 국제석재물류전시타운이 6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15일 7차 경매에서 매각률 24.1%인 48억1천700만원에 낙찰됐다.

보성군 보성읍 교회(감정가 33억2천200만원)와 영암군 학산면 오로라테마리조트(44억1천727만원)는 다음달 3일 5회차 경매를 진행한다. 또 감정가 117억원대의 목포시 연산동 광성조선소가 오는 19일 첫 경매에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작년 금호타이어 장기파업 여파

## 지역상장사 수출·내수 동반 감소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지난해 수출액과 내수 매출액이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2009년 12월 결산법인 수출 및 내수(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광주·전남 상장사의 지난해 수출액은 모두 1조6천571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9천884억원보다 16.7% 감소했다.

내수 규모도 2조20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조2천800억원보다 11.4% 줄었다.

지역 상장사 가운데 수출·내수 비중이 가장 큰 금호타이어는 장기 파업의 여파로 수출액이 19.9%, 내수액

은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상위사는 금호타이어(1조1천578억원), KPX화인케미칼(2천425억원), 대유신소재(878억원) 등의 순이었고, 내수액 상위사는 금호타이어(7천369억원), 조선내화(3천531억원), 부국철강(2천578억원) 등이었다.

또 수출 증가액 상위사는 대유신소재(216억원), 쉘런(117억원), 로케트전기(80억원) 등이며, 내수 증가액 상위사는 동아에스텍(242억원), 부국철강(126억원), 조선내화(90억원) 등의 순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출범

회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송기진(맨 오른쪽) 광주은행장과 하영구(오른쪽에서 두번째) 한국씨티 은행장, 김정태( 세번째) 하나은행장 등이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가 12일 서울 명동 은행

<광주은행 제공>

## 인셀스·동아에스텍 제품 우수조달품 선정

광주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인 인셀스(대표 정창권)의 '지능형 축전지(리튬이온)'와 화순 동아에스텍(대표 한상원)의 '개방형 방호울타리'가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12일 전국에서 신청한

108개 제품에 대해 기술심사 등을 실시, 신기술 제품 4개와 특허제품 34개 등 총 38개 제품을 새로 지정했다. 선정된 물품은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내로라합니다! 내로라합니다! 내로라합니다!



## 국제보청기

www.kfiea.com



본점 082-227-9940

충청점 057-227-9970

전선점 001)752-9940

부산점 081)262-9200

경기점 030)851-2422

## 무안→오사카 직항

**무안→오사카 직항**

무안→제주 항공편 판매

JIN AIR · 광주MBC 드와임방

여객운송 | LAND BANK | 만드뱅크 | 바이마이 | 광주여행 | 기사제작 | 아트

TEL 061-620-4000 FAX 061-620-4000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 146명 살펴보니…

지역출신  
광주 4명  
전남 6명

출신대학을 보면 서울대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세대(20명), 고려대(16명), 한양대(10명)가 두자릿수의 CEO를 배출했다. 외국대학 출신은 12명이었으며, 전남대 출신은 김성산 사장 1명이었다. 이곳에 출신은 절반에 가까운 67명(45.9%)이었고, 상경계열은 58명(39.72%)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출신고교는 경기고 22명, 경북고 15명, 서울고 10명, 중앙고 8명, 경남고·경북고 각 7명, 광주일고·대구상고 각 5명, 경동고·부산고·제물포고 각 4명 순이었다.

호석화 이 사장은 광주일고, KT파워텔 권 사장은 순천고 출신이다.

100대 기업 CEO의 평균 나이는 58.6세로, 58.8세였던 지난해보다 0.2세 낮아졌다. 가장 나이가 많은 CEO는 1922년생으로 올해 88세인 롯데 신격호 회장이었으며, 최연소 CEO는 1970년생으로 40세인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기차 내일부터 달린다

영광군 관용차 3대 운행

14일부터 영광에서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도로를 질주한다.

영광군은 12일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고 영광을 세계적 전기차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CT&T가 생산한 전기자동차 '이존(e-ZONE)' 3대를 관용차량으로 구입해 14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운행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마쳤으며, 14일 저속 전기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관용차로 운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도로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지방도 45개 노선 2천24km와 시군도 6천46개 노선 5천70km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